

커지는 인플레 경고음... 안팎에 복병

금리 인상 불구 국내 물가 상승 압력 지속

美 양적완화 조치·차이나플레이션도 암운

정부가 '물가의 전쟁'에 나섰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음은 커지고 있다.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경기 상승에 따른 수요 증가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제역과 한파로 농수산식품 가격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생필품 가격 역시 뛴 박질을 하면서 물가 불안 심리를 퍼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비롯한 주요국이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춘 유동성이 최근 들어 각국의 물가를 자극하면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한국

금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인플레이션 압력과 관련,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가 지난 13일 한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직후에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것과 비교할 때 물가 불안에 대한 발언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수입물가 상승률은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인 12.7%,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3% 기록했다.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과 농수산식품 가격의 고공행진에 따른 것이다.

이들 물가는 통상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3.5% 올랐다.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의 파급시기가 짧아지고 있어 올해 1월 소비자물가도 급등하며 1분기에는 4%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79개 생필품의 평균가격(지난 7일 기준)을 조사한 결과, 48개 품목(60.8%)이 전 주보다 올랐고 구제역과 한파 등의 악재로 '밥상 물가'는 치솟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공공요금과 주요 품목 가격의 인상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라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플레이션 막구름은 밖에서도 물려 올 조짐이다.

이미 신흥국들은 미국의 2차 양적완화(유동성 공급) 조치와 빠른 경기 회복으로 인플레이션 경고음이 켜

진 상태다.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중국의 임금과 물가 급등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차이나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미국 또한 변수다.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 2.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예상치 2.2%를 크게 웃돌며 세계 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도 한은의 전망치 4.5%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은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총재는 이날 "불가 안정의 기반 위에 적정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후 통화정책 두께에 대한 한 김 총재의 발언이 '경조한 성장'→'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물가 안정'으로 옮겨간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북 하천사업 3488억 투입

의산청, 45개 구간 테마형 생태하천 정비

의산청지방국토관리청은 19일 올해 광주·전남·전북지역 하천건설 사업에 총 3488억원을 투입해 45개 구간(39.3km)을 테마형 생태하천으로 정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산강과 국가·지방하천을 동시에 정비하는 것으로, 홍수 등 재해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테마형 생태하천을 조성해 지역 주민의 휴식·교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침이다.

광주·전남지역에는 올해 1301억원을 투입해 보성강 등 13건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남석제 등 4

건을 완공한다. 특히 영산강 지류하천인 지석천 나주1지구 등 5곳을 종합적인 생태하천으로 개발하고, 주요 지방하천인 서창천 등 7곳은 자체 특성을 반영한 '고향의 강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전북지역은 1610억원을 투입해 만경강 등 26건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강경제 상류 등 7건을 완공할 계획이다.

섬진강에도 385억원을 들여 생태하천(12.6km)과 자전거도로(111.7km)를 조성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우미, 화순 농어촌타운 350억 공사 수주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약 350억 원 규모의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조성 공사를 수주했다.(조감도)

이 공사는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일대 17만7000㎡ 부지에 타운하우스 150가구, 한옥 50가구, 노인정 등 기타 부대시설을 짓는 것으로, 화순군이 터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발주했다.



미건설이 대표사로 지분 40%를, 남해종합개발·해동건설·덕흥종합건설·용진종합건설 등 4개 지역업체가 각각 15%씩 참여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2,115.69 (+19.21)
▲ 코스닥지수	532.97 (+3.95)
금리 (국고채 3년)	3.79% (+0.13)
원·달러 환율	1,110.30원 (-60.3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호남(사시·관별)기업

방림동 방림우체국앞
인테리어 전문, 건축집수리 문의 환영
철구조를 상가, 일반건축
☎(011)604-8285

금강이발

학동 조대병원밑 휴먼시아@입구
남성컷트, 아이롱파마전문
☎(062)227-4690

일심공인증개사

산수동 새마을금고 부근
상가, 원룸, 아파트 토지매매 상담현영
대표 김용옥
☎(010)3646-5566

미성오리시대

운암동 운암시장사거리 에이스마트옆
오리오리의 명가
옻닭, 한방약오리, 추어탕, 동태탕
대표 박홍수
☎(062)526-7181

신신예술의집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김용만의국수집

금남로1기 YMCA 1층
맛있게 해드립니다!
☎(062)236-3533

황금하우스

황금동 황금주차장옆
한식·삼겹살전문
대표 임명희
☎(062)234-1900

사랑방들깨칼국수

신창동 부영1차 106동앞
죽어칼국수 팔죽칼국수 바지락칼국수 등
맛있게 해드립니다.
☎(062)951-7885

영암마트운암점

운암동 낙천대@단지 운암우체국 맞은편
OPEN 기념 미티즈시ทธ장고 강남장고 영광글비
영마트상품권, 친환경시과, 고마, 한우암수족세트
경품대진치 구매금액별 사은품, 선물증정
☎(062)514-4851

대명산장어

신창동 진홍고 후문 신창동주민센터 뒤편
25년 전통의
장어구이 전문점
대표 김정남
☎(062)956-1092

생고기촌구이박사

신창동 광주은행 맞은편
소고기 구이와 삼겹살
생고기 전문, 단체모임 환영
대표 신승진
☎(062)961-8488

밀밭칼국수

서석초등학교 정문 앞
향암효과, 노화방지에 좋은
백년초 칼국수 전문점
대표 김미경
☎(062)227-5001

월출암(백마장군)

중흥3동 효동초교 후문 일방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대표 허길배
☎(062)527-2008

LG공인증개사

수원동 수원지구 열병합발전소입구 굽도로변
APT, 상가, 원룸, 빌딩 공, 경매, 매매 및 임대일선
수원지구 중개전문업체, 각종 부동산 컨설팅 상담
☎(062)951-5589

수완꽃조경

수원동 수원지구 열병합발전소입구 굽도로변
꽃비구니, 경조화환동, 서양란, 실내, 외조경
웨딩카, 부케 전국꽃배달서비스
☎(062)953-3389

한시루

수원동 수원중학교 옆
조개사루찜, 해물탕, 해물찜, 비빔밥, 낙지오리전문
낙지덮밥, 해물칼국수, 초무침, 볶음, 전골
☎(062)951-8082



기내서비스 등 4개 부문

아시아나 최고상

아시아나항공은 18일 뉴욕 맨해튼 앤더슨 월스트리트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세계적인 여행전문지인 글로벌 트래블러로부터 4개 부문 최고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아시아나가 이번에 받은 상은 7년 연속 최고 기내서비스 상과 최고 승무원 상, 외에 2년 연속 동북아시아 최고 항공사 상과 2008년에 이은 환태평양 최고 항공사 상이다.

비즈니스 여행전문지인 글로벌 트래블러는 매년 구독자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항공 관련 21개 부문의 최우수 업체를 시상한다.

/연합뉴스

대학생 카드 지출

한달 평균 30만원

대학생들 중 40% 가까이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 달 평균 카드 지출액이 30만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이지서베이와 함께 대학생 6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갖고 있다 는 응답자가 전체의 37.6%에 달했다. 신용카드 보유 비율은 남학생(41.2%)이 여학생(34.1%)보다 높았다.

갖고 있는 신용카드의 수는 1개(60.9%)가 가장 많았고 2개(31.6%), 3개 이상(7.4%) 등 순이었다.

신용카드를 소지한 응답자들이 한 달에 카드로 쓰는 금액은 평균 32만 원으로 집계됐다. 남학생은 평균 35만 원, 여학생은 29만원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한파에 손보사 비상

일부 지역의 날씨가 수십 년 만의 최저 기온으로 떨어지는 기록적 한파가 이어지면서 손보사들의 경영도 얼어붙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에 사항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한 66건 가운데 수용 29건(45.5%), 일부 수용 9건(13.6%)으로 전체의 59.1%를 차지했다. 또 겸보증 16건(24.2%), 수용과반 7건(10.6%), 중장기 겸보 4건(6.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LED(발광다이오드) 인증 절차 간소화, 공장 증설 관련 건폐율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 외국인 퀘터제 확대, 임시투자세의 공제 제도 연장,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 등 기업의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이 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 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발전하려면 기업의 발목을 끊을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 지역 기업 애로사항 가운데 59%를 해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연합뉴스